

生活의 科學化 實踐다짐

11個地域서 全國民科學化運動 促進大會 개최

科學技術處는 生産的인 國民氣風을 振作하고 先進國으로 도약할 國民力量을 結集시켜 80年代 福祉國家 建設을 위한 全國民科學化運動 促進大會를 全國 10個 市道廳소재지에서 갖기로 하고 그 첫번째大會를 5월 10일 大田에서 개최했다.

大田 가톨릭文化會館에서 開催된 이날促進大會에는 崔鍾洸과기처장관·孫守益충남도지사를 비롯 관계인사 200여명이 참석, 高度産業國家 建設을 위해 全國民이 生活의 科學化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축진대회에서 崔鍾洸과기처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날 科學技術이 미치는 影響은 우리의 모든 生活領域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 強大國이나 弱小國이나 하는 判斷基準도 科學技術에 관한 底力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나라의 科學技術 發展은 政府나 科學技術者들의 힘만으로는 不可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崔長官은 이어 새마을 運動과 科學化運動은 서로가 서로를 補完하여 國家發展을 이룩하자라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새마을 運動이 시작한지 불과 10년도 못되어 우리의 地域사회를 이토록 발전시키고 國家發展의 礎石을 튼튼히 한것은 이 운동을 통해 보여준 여러분들의 奉仕的인 犧牲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당면한 국가목표인 고도산업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을 이룩하자면 또 다른 次元에서 科學化運動에 汎國民的인 參與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崔長官은 새마을運動과 科學化運動에 대해 설명한 뒤 『우리들 既成世代들은 科學技術에 대한 意慾이 충분해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을 주고 가



◇ 生活의 科學化실천을 다짐하는 忠南道民들
구는 성의를 다하는한편 새마을사업 수행과정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보여준 끈기로움에 「과학 기술의 슬기」를 보탠다면은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기필코 성공할 것이며 80년대의 先進工業福祉國家는 우리힘으로 建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忠南道民 一同은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을 빨리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 선진 공업복지국가 건설의 지름길이 됨을 확신하고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하며 이를 보급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3개항의 決意文을 採擇했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洪文和박사(서울대약대교수)로부터 ‘全國民 科學化 運動’에 관한 講演과 科學映畫 上映이 있었다.

한편 이 축진대회는 22일은 대구에서 23일은 부산, 24일 마산, 29일 광주에서 개최되었으며 6월 1일에는 춘천에서, 5일은 제주, 7일은 수원, 8일 전주, 그리고 12일은 청주에서 대회를 가진 다음, 오는 7월 10일경에 서울 世宗文化會館에서 中央大會를 개최할 예정이다.